

정책은 늦고 시장은 빠르다: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화

[디지털 자산] 양현경 2122-9213 beeb2724@imfn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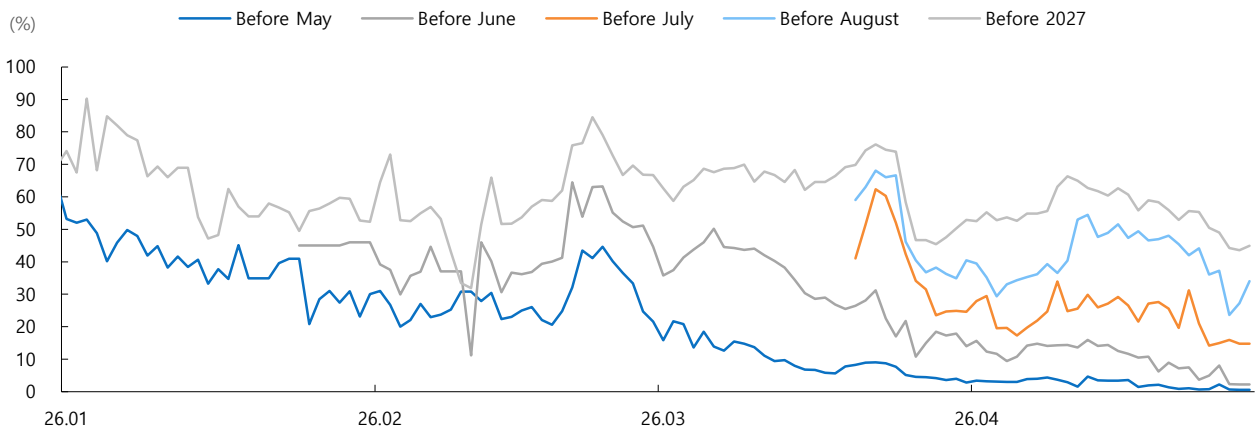
Check Point

- Clarity Act 은행 상원위 Markup 일정 지연, 5월 은행 상원위 일정 재조정 가능성 존재
- Tether 미 재무부 요청에 따라 이란 자금 3억 4,400만달러 동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SWIFT와 금융제재 유사한 역할 수행

Clarity Act 은행 상원위 Markup 일정 지연, 5월 은행 상원위 일정 재조정 가능성 존재

현재 Clarity Act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시장에서 기대했던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이 연기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확대되었다. Kalshi에서는 Clarity Act의 통과 확률을 2026년 6월까지 17%, 7월까지 34%로 보고 있으며, 연내(2026년) 통과 가능성도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해당 확률은 1월 30일 기록한 최고치(90.2%)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다만, 이후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발언을 계기로 시장 분위기는 다소 반전되고 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Clarity Act가 5월 첫째 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중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6월 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재형성되는 모습이다.

기간별 Clarity Act 통과 가능성



자료: Kalshi, iM증권 리서치본부

Tether 미 재무부 요청에 따라 이란 자금 3억 4,400만달러 동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SWIFT와 유사한 금융제재 역할 수행

Clarity Act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4.23일 Tether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요청에 따라 이란과 연관된 두 개의 지갑에 분산되어 있던 약 3억 4,400만 달러 규모의 USDT를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Tether는 범죄·제재 대상과 연관된 주소를 식별할 경우 토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 65개국, 300개 이상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4월에도 Tether와 Circle은 이란 가상자산 거래소 월렉스(Wallex)와 관련된 약 249만 달러 규모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국제 결제망인 SWIFT와 유사하게 금융 제재를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국가나 금융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난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고, 누구도 거래를 임의로 차단할 수 없는 검열저항성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특정 주소를 식별하고 자산 이동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통제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Tether와 Circle이 제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 입장에서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충분히 통제 가능한 구조임을 입증하며, 결과적으로 제도권 편입에 대한 정치적·규제적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하다. Clarity Act는 이자 지급 문제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큰 흐름 속에서 통과 필요성이 높은 법안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발행사와 규제 당국의 협력을 통해 일정 부분 통제 가능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고, 정치권 역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친 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탈중앙화된 자산'이 아니라 '달러 패권을 확장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Clarity Act는 결국 처리될 사안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표1. 26.4월 Clarity Act 관련 발언 정리 업데이트①

주요내용	
 <p>스콧 베센트 (재무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3 조 달러에 달하고 미국인 6 명 중 1 명꼴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상원 본회의 시간은 부족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다.” -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 혁신이 아부다비나 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관할 지역으로 옮겨갔다.” <p>→ 스콧 베센트 장관은 2026.11 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서 CLARITY Act 법안의 통과 가능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현재 상원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중임</p>
 <p>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년 이전에 Clarity Act 를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현실적인 기회다. 우리는 국가의 재정적 미래를 포기할 여유가 없다.” <p>→ 시사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현재를 Clarity Act 입법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 11 월 중간선거 본격화되면 의회가 ‘중간선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Clarity Act 법안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11 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Clarity Act 입법은 다음 중간선거(2030 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Clarity Act 법안 통과를 촉구</p>
 <p>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디지털자산 규정에 명확성이 필요하다)에 동의한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 시점이 왔다.” - “지난 몇 달 동안 이 법안(Clarity Act)을 강력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온 상원의원들과 보좌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p>→ 시사점: 1.14 일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①토론회 주식 금지, ②DeFi 금지, ③CFTC 권한 약화 및 SEC 에 종속, ④거래소 및 플랫폼의 스테이블 코인 보상 금지 내용으로 Clarity Act 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바 있음. 현재 시점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Clarity Act 지지한 점은 Clarity Act 수정안이 과거만큼 가상자산 업계의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거나 혹은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더라도 규제 불명확성보다 규제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존재</p>
 <p>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에 3 가지 쟁점 존재한다. 해당 문제들 모두 해결되려면 2 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첫 번째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로 향후 2 주안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는 DeFi(탈중앙금융) 관련 조항으로 이 문제 역시 2 주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는 은행위 소속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며 이들의 지지를 확인하는데 2 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 시사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13 명), 민주당(11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 본회의 상정 전 은행위원회에서 먼저 심의와 표결을 거치며 여기서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음.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관련 은행위 소속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p>

자료: 언론 종합, iM증권 리서치본부

표2. 26.4월 Clarity Act 관련 발언 정리 업데이트②

주요내용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건 결국 처리될 사안이다.” - “5월 첫째 주에 위원회로 넘어가고, 그 뒤로는 빠르게 진행돼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다.” - “CLARITY Act가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p>→ 시사점: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등의 이견이 존재하나 결국 초당적 합의하에 통과할 것으로 전망. 예측시장 Kalshi는 Clarity Act 상반기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2026년 상반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임. 다만, 가상자산 업계측 인물이기에 Clarity Act 통과 시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존재</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관은 은행들이 Clarity Act를 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디지털자산 분야의 리더다. 이제는 주류가 됐다.” - “미국은 이미 디지털 자산과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p>→ 시사점: 백악관은 기존 전통 금융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로비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가상자산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Clarity Act 통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p>

자료: 언론 종합,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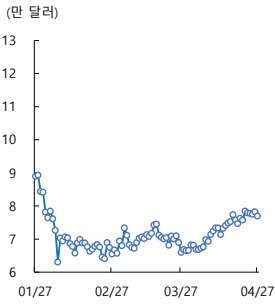
전주 Digital Asset Comment

비트코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이란 종전협상 관련 교착상태로 상승분 일부 반납하며 7만 7천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 금주 일본,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의 진행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서는 경계감 일부 유입.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적 시그널 나타날 경우 가상자산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이외에도 빅테크 실적 발표도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동성 장세에 유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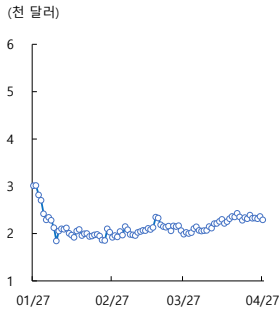
가상자산 News Flow

주요기사	언론사, 날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부담 커진다...고팍스·코빗, 수익성 '빨간불'	데일리한국 4.21
美 클래리티 법안, 4월 처리 무산... 통과냐 폐기냐 '갈림길'	Digital Today 4.23
테더, 3.4억佛 규모 USDT 동결... "美 정부 요청"	Bloomingbit 4.23
정체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법인 투자 '안전장치'도 올스톱 [크립토360]	헤럴드경제 4.25
트럼프, 김코인 행사서 "은행이 클래리티 법안 망치게 만들 것"	ZDNET Korea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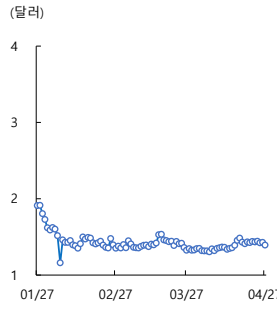
비트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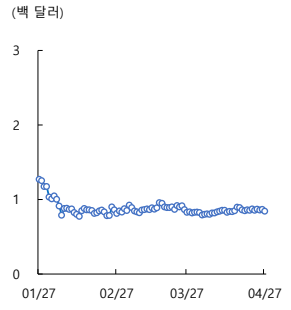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일주일간 수익률 상위 종목(시총 주요 종목 기준)

순위	종목명	1D (%)	1W (%)	1M (%)	1Y (%)	증가 (\$)	시총 (\$1M)
1	테라 클래식	4.8	53.5	78.4	1.5	0.0	329
2	엑시 인피니티	1.5	29.1	25.6	-44.7	1.4	224
3	팬텀	5.1	20.7	3.6	-91.9	0.0	127
4	알고랜드	-3.6	11.8	41.8	-49.4	0.1	1,039
5	제트캐시	-2.0	9.9	61.0	957.3	351.1	5,959
6	코스모스	-1.2	9.8	17.5	-56.9	2.0	1,001
7	모네로	-2.6	8.6	14.1	67.5	383.0	7,260
8	도지코인	-1.0	2.3	6.4	-45.6	0.1	15,121
9	대시	-4.3	1.9	9.6	56.7	35.3	442
10	비트코인	-1.6	0.9	15.1	-18.2	76968.5	1,551,560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일주일간 수익률 하위 종목(시총 주요 종목 기준)

순위	종목명	1D (%)	1W (%)	1M (%)	1Y (%)	증가 (\$)	시총 (\$1M)
1	플카닷	-3.6	-5.3	-4.9	-71.3	1.2	2,084
2	바이직어텐션토큰	-2.9	-4.6	6.7	-32.3	0.1	155
3	샌드	-5.1	-4.1	4.8	-75.1	0.1	229
4	리플	-2.5	-2.8	3.5	-36.3	1.4	87,358
5	커브 다오 토큰	-1.6	-2.3	8.3	-66.2	0.2	342
6	유니스왑	-2.0	-2.2	-6.3	-44.4	3.2	2,058
7	이더리움	-3.0	-2.0	13.3	26.9	2291.8	278,253
8	솔라나	-2.8	-2.0	1.1	-43.2	84.3	49,068
9	파일 코인	-3.4	-1.8	13.8	-68.0	0.9	718
10	카르다노	-2.5	-1.8	-1.6	-65.1	0.2	9,161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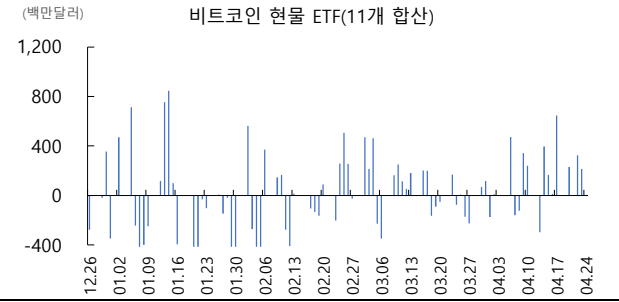
전주 일주일간 거래대금 상위 ETF(주요 종목 기준)

구분	티커	수익률(1W, %)	AUM(\$1B)	운용보수	거래대금(1W, \$1M)	배당수익률	연배당 횟수
비트코인 현물	IBIT	3.02	63.06	0.25%	7,910	-	-
비트코인 선물	BITO	2.90	1.93	0.95%	5,544	72.70%	월배당
이더리움 현물	ETHA	-1.68	7.37	0.25%	2,251	-	-
비트코인 현물	FBTC	3.02	14.59	0.25%	885	-	-
비트코인 현물	GBTC	2.95	11.78	1.50%	488	-	-
이더리움 현물	ETH	-1.61	2.11	0%	333	-	-
비트코인 현물	BITB	3.03	2.98	0.20%	255	-	-
비트코인 현물	BTC	3.03	4.12	0.15%	250	-	-
이더리움 현물	FETH	-1.66	1.36	0.25%	248	-	-
이더리움 현물	ETHE	-1.67	1.90	2.50%	239	-	-

자료: Bloomberg, ETF Check,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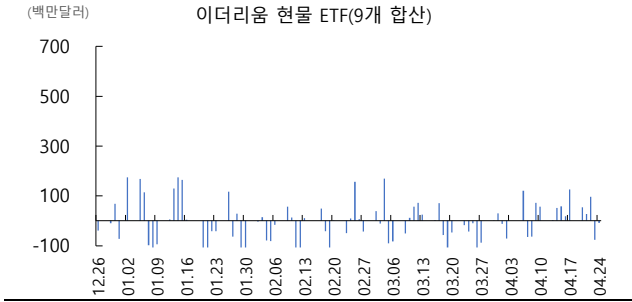
주) 높은 배당수익률은 비트코인 선물차익을 분배금으로 나눠주기 때문. 코인 상승장에서는 분배금이 많으나 하락장에서는 줄어드는 특징 존재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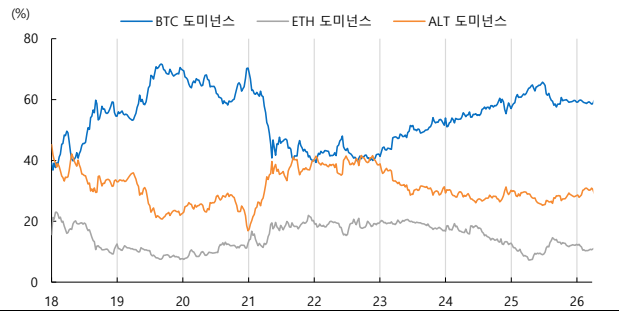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이더리움 ETF 펀드 플로우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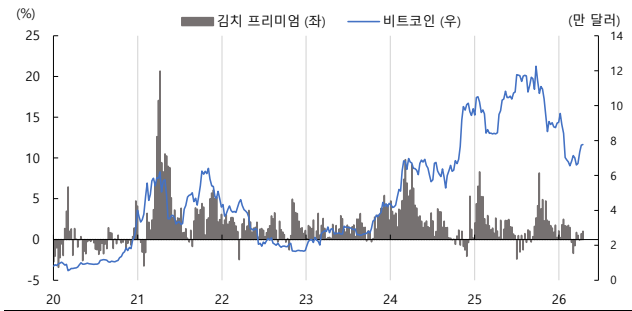
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 도미넌스



자료: Trading View,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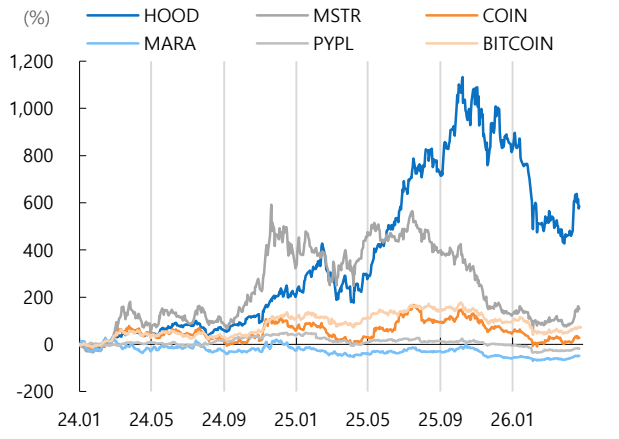
주) 도미넌스란 전체 시가총액에서 해당 자산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비트코인 가격과 김치 프리미엄



자료: Trading View, iM증권 리서치본부

가상화폐 관련 상장사 주가 수익률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코인 및 자산별 상관관계(3M)

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솔라나
S&P 500	0.46	0.36	0.36	0.04	0.23
Nasdaq	0.63	0.54	0.42	0.15	0.33
미국채 2Y	0.14	0.20	-0.17	0.29	-0.06
미국채 10Y	0.32	0.37	0.04	-0.07	0.16
DXY	-0.33	-0.30	-0.50	0.44	-0.37
WTI	-0.07	-0.01	-0.39	0.51	-0.29
금	0.13	0.08	0.34	-0.05	0.26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현경)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